

AUTHOR 성기문

TITLE 장 칼뱅의 주석에 따른 구약십일조와 신약헌금

IN 진리와 학문의 세계  
6권 (봄, 2002): 11-29.

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그들은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이론적으로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의 강의가 알맹이가 없다고 할 자가 있는가? 단언하건대 그들은 신학생들에게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한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먹이는 실천에 힘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시대의 신학교에서 박사학위가 교수가 되는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은 다시 점검되어야 한다. 신학교는 신학적 이론을 가르치는 박사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적으로 먹이는 교사가 필요함을 기억해야만 한다. 우리의 신학교들이 변하기를 바란다. 말씀에 익숙한 교사들이 신학생들을 말씀으로 먹이며 교육하고, 그 아래서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야만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있는 이유가 분명 여기에 있다. 신학교의 변화를 통해 한국교회가 말씀 가운데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 열봉산 아래서 -

## 장 칼뱅의 주석에 따른 舊約十一租와 新約獻金<sup>1)</sup>

성기문(Th.D.Cand.,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1. 머리말
2. 구약 십일조와 성전세 규정들에 대한 칼뱅의 이해
3. 신약의 구제헌금에 대한 칼뱅의 이해
4. 결론

1) 이것은 필자가 온라인신문 <뉴스앤조이>에 수개월동안 연재했던 <한국교회의 십일조논쟁>의 부록의 일부의 개정본이다. 원래 게재되었던 원고는 각주부분이 전부 생략되어있었는데, 이 원고에서는 전부 첨가하였고 일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레위지와 사람들의 생계비는 십일조로 해결되었다. 여기에 근거하여 가톨릭 신부들은 어리석은 주장을 내세운다. 즉 마치 자기들이 제사장직을 가진 자들인 것처럼 십일조가 당연히 자기네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치 그들은 자기네가 모든 경작지[즉, 교인들의 모든 소득] 중 십분의 일의 소유주인양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속인(俗人)이라고 일컫는 자들[즉, 평신도들]이 자기들의 소작인(小作人)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카톨릭 신부들이 십일조를 자기들의 소용(所用)으로 삼는 것과 토지들을 소유하여 그 경작세(耕作稅)를 받는 것은 망령된 것이다. 카톨릭신부들이 “제사직분이 바뀌었으니, 율법도 반드시 바뀔 것이다”(히 7:12)라는 말씀을 부정적하게 뿐만 아니라, 무식하게 인증하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율법에서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은 무엇이든지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레위인 제사장들의 권위와 직책은 그리스도안에서 그 목적을 갖기 때문이다. 이 멍텅구리 카톨릭 신부들은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합당한 영예를 마치 그리스도에게서 도적질하듯이 자기들이 찬탈해 간다. 만일 그 카톨릭 신부들이 자기들의 직무를 합당히 수행하고 모든 세상적인 사업을 포기하면서, 전적으로 백성들을 교육하는 일과 그 밖의 착하고 충실한 목자로서의 모든 직무들을 수행하는데 몰두한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사회의 지지를 받아 마땅하다. 이것은 바울이 바로 말씀한 바대로, 구약에서 제단(祭壇)에서 봉사했던 제사장들에게 제물이 소유물로 주어졌던 것과 같이 오늘날 복음의 사역자들에게도 생계비가 지급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고전 9:14). 그러나 이러한 구실 아래 카톨릭 신부들이 부당하게 십일조를 마치 자기들의 소유물인양 착복하며, 더구나 몰염치하게도 토지와 다른 재원을 축재하고 있다“(칼뱅의 민 18:20에 대한 주석 중에서)<sup>2)</sup>

## 1. 머리말

지면상의 한계와 방대한 연구의 부족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시대의 개혁자들의 관점들<sup>3)</sup>을 다 다루어보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 장에서는 칼뱅의 주석들<sup>4)</sup>만을 고찰함을 통하여, 존 칼뱅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할까 한다. 여기서는 가급적 필자 자신의 견해는 자제하고 칼뱅 자신의 견해를 철저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요한 칼뱅의 성경주석은 물론 당시의 종교개혁적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 하지만, 십일조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한국장로교회에 큰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의와 칼뱅의 주석들을 가까이하라는 권면을 통하여, 한국장로교회가 칼뱅에 무지하고 칼뱅(마찬가지로 칼빈주의의 정통노선)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우려섞인 비난(非難)과 자조(自嘲)가 사라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2. 구약 십일조와 성전세규정들에 대한 칼뱅의 이해

2) 2권 4, 244-5

3) 일부사람들은 마틴 루터가 십일조를 용인(容認)했다는 점에서 용기를 얻는다. 그러나 필자는 루터가 십일조를 교회보다는 세속정부에 낼 것을 주창하였으나, 많은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4) 한국에는 두 종류의 칼뱅주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자는 편의상 성서원에서 나온 칼뱅주석(서울: 1999)을 참조하였다. 이후에 언급될 인용문들은 발행된 권수와 원래의 책권수, 그리고 페이지만 언급하도록 하겠다(성서원 칼뱅주석 제몇권, 원래주석책 제 몇권, 그 책의 몇번째 페이지; 예, 2권 4-II, 17).

칼뱅은 구약 모세오경의 주석을 창세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책별, 장별로 하지 않고, 십계명(Ten Commandments)의 순서를 중심으로 주제별로 나뉘서 강해와 설교, 기도의 순서로 전개하였다. 역사서의 경우에는 칼뱅이 주석하지 않았으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창세기주석<sup>5)</sup>에서, 칼뱅은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에 대한 만남과 십일조를 드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논조들을 취한다. 우선적으로 아브라함을 맞아 떡과 포도주로 위로하고 복을 빈 멜기세덱의 두가지 행동을 두가지 직분으로 나뉘서 설명한다. 카톨릭의 해석을 반박하면서, 떡과 포도주는 그냥 손님을 영접하고 위로하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한 것 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누차 밝힌다(pp. 370-1). 특이하게도 살렘(Salem)이 후대의 예루살렘(Ir-Salaym)이었을 수 있다는데 동의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점도 밝힌다.<sup>6)</sup> 그러나 여기서의 칼뱅의 일차적인 주된 관심사는 카톨릭과의 논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시작도 끝도 없는 사제직의 승계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칼뱅은 일회적으로 아브라함의 십일조를 멜기세덱의 사제직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 것으로 이해하였다.<sup>7)</sup>

5) 우리가 다루는 창 14:18ff.와 28:20ff.에 대한 칼빈의 주석은 한글판 11.370ff.와 12.173ff.에서 찾을 수 있다.

6) '나는 살렘이 예루살렘이라고 이해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쉽사리 믿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석이다. 그러나 만약 누가 그 도시는 평야에 위치해있다는 것으로 보고 상반된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한다면, 나는 그것에 반대는 하지 않겠다'(pp. 371-2).

7) 여기서 칼뱅은 필자와 의견이 다르지만, 대략적인 의미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아브람이 멜기세덱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께 선물들을 드림으로 그런 첫 번째의 열매로서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에게 헌납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람은 자願하여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쳐서 그의 사제직을 존경했던 것이다. 더욱이 이 일은 그렇게 생각없이 허겁지겁 잘못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적절하게 추론하기를 이 비유에서는 레위지파에

칼뱅은 기본적으로 야곱의 서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고수한다. 어쨌거나 야곱의 서원물들 중에 마지막인 십일조를 칼뱅은 다음의 인용문에서처럼, 야곱이 "구제와 도움의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서원(誓願)한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pp. 176-7):

그 다음에는 십일조의 드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한 의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자선의 의무가 추가된다. 왜냐하면 야곱은 세가지 순서를 열거하기 때문이다. 곧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영적 예배이다. 둘째는 외면의식적으로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의 경건을 돕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고백한다. 세번째로는 봉헌이 나오는데 그는 이로써 자기 형제들을 친절히 돕는 일에 정진한다. 의심할 나위도 없이 십일조는 이 세 번째에 해당된다.

출애굽기주석<sup>8)</sup>에서, 칼뱅은 반 세겔에 대한 언급에서 속전으

속한 사제직이 그리스도의 사제적보다 하위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다른 이유로서는 하나님이 이후에 율법하에서 십일조를 레위인들에게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아브람의 시대에는 그 십일조는 단순히 감사에 대한 맹세이며 표로서 바쳐진 거룩한 제물이었다. 그러나 아브람이 노획한 것들의 십분의 일을 바쳤는지 또는 자기가 집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의 십분의 일을 바쳤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아낌없이 썼거나 그가 실오라기 하나라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결심한 노획물들의 십일조를 바쳤을 것이라는 생각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나는 오히려 이 십일조가 그의 재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추측하고 싶다. 그러나 나는 어떤 자들이 상상하는 대로 이것이 매년마다 바치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고 나의 판단으로는 그가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대사제로 인정하려는 목적으로 멜기세덱에게 즉시[필자주: 번역본에는 또 한번으로 번역되었는데 잘못이다; once] 이 선물을 헌납했다고 본다.(pp. 276-7)

8)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출30:11-16과 38:24-31은 칼빈주석(한글판) 2.2.474ff.와 3.5.289ff.에 나타난다.

로 들려진 반세겔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일하신 왕으로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죄에 대한 속죄와 속상의 의미로 사용되도록 했다는 점은 자신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이신 것의 고백과 자신들이 행한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로서 기능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또한 속전의 공평성(레위기에 나와있는 제물들의 차별성과는 달리,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달리 내지 않는 점)은 죄에 대한 개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경중이 없고 차별이 없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레위기 27:30<sup>9)</sup>에 대해서 칼뱅은 레위인의 십일조를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곡식의 십일조를 화폐로 낼 때, 1/5를 더하여 내도록 한다든지, 가축의 십일조는 화폐로 내지 못하게 한 것은 현납자들이 잔피를 부리지 못하게 하려함이라고 이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레위인들에 대한 배려의 예가 말 3:8에 나타난다고 본다.

민수기주석<sup>10)</sup>에서, 칼뱅은 18장에 대한 언급에서, 오경의 십일조 규정에 세가지 십일조의 국면들이 있었음을 언급한다. 그는 십일조의 관행이 이미 족장시대에도 있었다고 전제하고, 모세시대의 십일조 규정의 차이점은 우선적으로 이스라엘백성들에게 가나안땅을 주셨다는 점과 회막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레위인들에게 대가를 줄 필요성이 생겼다는 점이다. 칼뱅에 따르면, 하나님의 십일조의 주인이셨으며, 레위인들의 분깃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일조가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한다(p. 244). 여기서 칼뱅은, 이러한 유비로 가톨릭신부들이 십일조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지적한다. 또한 제사장에게 내는 십일조에 대해서도 몇마디한다. 칼뱅

9) 30절에 대해서는, 칼빈주석(한글판) 2권 4.246-7을 보라.

10) 18:20-21(2권 4.242ff.), 21-23(2권 4.220ff.), 25-32(2권 4.253ff.)

은 레위인들의 탐심과 부정적으로 버리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 십일조규정이 제정되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적절한 보수인 십일조<sup>11)</sup>는 어느 곳에서나 어떠한 식으로도 소진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

신명기주석<sup>12)</sup>에서, 칼뱅은 14:8-29에 대한 언급을 먼저 다루어보자. 22절의 언급에 대해서는, 땅을 소유로 받은 자들이 마땅히 소유로 받지 못한 자들을 돌보아야한다는 명령으로 이해한다. 23절의 언급을 십일조, 서원물, 낙헌제물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야웨가 택하실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여긴다.<sup>1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부분을 이스라엘의 전지역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거둬서 냈다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편리한 대로 인근지역의 십일조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더 먼 지역에서 모여진 것은 그곳에 따로 모아 두었지만 이것도 예루살렘에서 모두 집계를 내서 마지막에 레위인 가족 수에 따라서 동일한 분배가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주장한다(p. 106). 그러므로 칼뱅은 각 지역의 추수터에서 레위인들을 위한 십일조가 거둬졌고 사제들을 위한 십일조가 성소(예루살렘?)로 보내졌다고 믿는다(p. 106). 축제의 십일조 자체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고 모호하기도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야웨 앞에서의

11)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제2단계의 십일조를 정직하게 드린 후에는 레위인들은 모든 죄책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레위인들로 하여금 제2의 십일조 드리는 일에서 도적질을 하지 말라고 엄히 훈계하시고 계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만일 레위인들이 바쳐야 할 제2의 십일조를 조금이라도 횡령한다면 이것은 신성모독의 죄에 해당한다고 선포하고 계신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죄를 범한다면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제사장에게 드릴 성물을 더럽히는 것은 온 백성의 명의로 봉헌한 모든 것들을 더럽힌 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p. 255).

12) 14:22, 28(2권 4. 247-9); 14:23-26(2권 4.105ff.); 18:1-8(2권 4.256ff.); 신 26장(2권 3-I:484ff.; 349ff.); 특별히 26:12,14,15(2권 4. 249ff.)

13) 필자는 이러한 주장을 동의하지 않는다.

소진'을 성소의 거룩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 같다.<sup>14)</sup> 28절에 대해서, 삼년마다의 십일조를 언급하면서,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세 종류의, 즉 땅의 소득의 3/10을 적어도 십일조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매년 1/10을 여러 종류로 나눠 쓰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p. 248). 그리고 황송하게도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도록 하신다고 이해한다.<sup>15)</sup> 칼뱅은 신 26:12-15을 각각 '십계명서문'(26:1-11)과 '제1계명에 대한 의식상의 보충'(12-29절)이라는 큰 제목 하에서 다루고 있다. 전자는 만물과 장자에 대한 언급이며 후자가 십일조에 대한 언급이다. 지면관계상 만물과 장자에 대한 언급<sup>16)</sup>은 생략하기로 한다. 십일조를 바친 후에 야웨

14)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장소는 하나님 예배자들이 전 지역으로부터 와서 예배드릴 만큼 하나님께 성스러운 곳이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에 대한 순수한 준수를 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로 다른 장소 때문에 백성들이 여러 방향으로 거뒀던 미신에 이끌리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뜻에서이다(as if it had been said, that the place should be sacred to God, to which the worshippers of God might come from the whole land. Yet He commands, in the meanwhile, the pure observation of His worship; lest a diversity of places might draw away the people in various directions to false superstitions)'(pp. 106-7).

15)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년 동안 잘 준비하여 가난한 동족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그 몫을 분배하여 갖는다는 것은 매우 공정한 배려이다. 레위인들은 풍부하게 받은 십일조 중 그 일부를 삭감받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사치스런 생활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레위인들은 자기들이 받는 십일조의 12분의 1정도를 매년 저축해야 된다는 결론이다. 요컨대 매 7년마다 한 해는 특별히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소득으로 받은 십일조를 자기들만이 갖지 않고 그 십일조를 고아들과 과부들과 나그네들과 기타 가난한 자들로 나누어 가진다는 말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굶주림을 당한 자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리라"(29절).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로 하여금 관대하도록 권고하신다'(pp. 248-9).

16) 만물과 장자에 대한 언급말미(p. 488)에 칼뱅은 이러한 규정이 포로이후에 등한히 되었고 말 3장에 다시 언급되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맹세와 고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의 맹세는 "완수(完遂)의 자랑"이 아니라, "완수키 위한 소원(所願)"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p. 250). 칼뱅은 '애곡하는 날'을 마음의 근심이 있는 날로 이해하는 주장에도 동의한다. 혹은 속되게 십일조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칼뱅은 개인적으로 장례의 애곡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오용했다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한다(p. 252).

말라기 주석<sup>17)</sup>에서, 칼뱅은 십일조와 만물이 사제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제정된 규례라는 것을 인정하고 심지어는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는 우리의 탐욕은 일종의 신성모독(sacrilege)이라고까지 말한다.<sup>18)</sup> 칼뱅은 3장의 이전 절들에

17) 제 15권 30:315ff.

18) 다음은 pp 437-8의 인용이다: "...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그 사실은 분명했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한 가지의 판결만으로도 그들의 유죄를 선포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어 그들이 십일조와 첫 열매를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현물을 바친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현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예배를 위해 정해 두셨던 자신의 몫을 마땅히 요구하시고 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십일조를 바쳐 사제들을 뒷바라지하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그 일부를 사용하도록 제도화하셨으며, 또 첫 열매와 다른 물질을 자신에게 바치도록 하심으로써 사람들이 계속 모든 사물을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시어 이전에 진설병을 차려 놓도록 하시고, 마치 잠수시키고 마시는 것처럼 제사를 자신의 음식이라고 부르셨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이런 제도의 뜻을 생각해야만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리며 동시에 그분의 예배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것으로 생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 그들이 십일조를 도둑질한 것에 대해 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회생제사가 우리에게 규정되었음을 알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찬양 뒤에, 우리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구제할 것을 명령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불친절하고 그들

대한 연속으로서 10절을 이해한다(pp. 440ff.). 선지자는 온 백성들이 가난한 자들과 필요한 자들에게 제대로 주지 않은, 모든 강탈한 물건들을 돌려놓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칼벱은 백성들이 온전한 십일조가 아닌, 반쪽의 십일조를 사제들에게 제공했던 것으로 본다. “내” 집에 있는 양식(칼벱은 고기[meat])의 용도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들과 곤궁한 자들, 그리고 야웨 앞에서의 축제의 용도(신약적으로는 성만찬?)로 이해하는 것 같다.<sup>19)</sup>

의 궁핍에 도와 주기를 거절한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참으로 악한 인간이며 잔인한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불충성한 칭지기이므로 우리의 죄는 더욱 고질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게 대해 주신 것은 우리의 풍성함의 일부분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도록 하신 것이다. 또한 우리의 풍성함의 일부가 가난한 자들이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별 하셨으므로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주지 않는 것은 신성모독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한 자를 붙잡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잠 19:17)는 구절처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다.”

- 19) P. 441에 따르면: ‘선지자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라고 덧붙인다. 우리는 이런 표현법을 다른 곳[?]에서 설명했다. 앞에서[3:4-8절에 대한 칼벱의 178번째 강의]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실 것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이 아니므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들이 떡과 희생제물 등을 바치고,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존전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이라는 점을 이미 지적한 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거하신다는 것보다 더욱 바람직한 일이 어디 있는가? 이런 사실은 율법 속에 자주 반복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님이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으면서 우리와 똑같이 떡과 다른 것을 잠수시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방법일 리가 없으므로 율법에서는 단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며 기뻐하라”(신 2:18)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며, 또한 사람들은 우둔해서 마신에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 세상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위치에 사제들과 가난한 자들을 대치시킴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에게 바치는 것을 그들이 사용하도록 하셨

### 3. 신약의 구제헌금에 대한 칼벱의 이해

칼벱은 신약주석시리즈를 내는데 있어서, 공관복음서의 경우에 모세오경주석시리즈처럼, 책별로 하지 않고 각복음서의 유사 부분들을 대조형식으로 묶었다.

마태복음주석<sup>20)</sup>에서, 칼벱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의 비난을, “모든 위선자들이 몰두하고 있는 잘못, 곧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법석을 떨면서 율법의 주요 골자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을 들어 서기관들을 호되게 꾸짖고 있다”고 이해한다(p. 308).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천하는 여러 가지 임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위선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거짓 사랑을 위장하고 거짓말하는 일이 수월하다. 그러나 형제애의 여러 임무는 모두가 볼 수 있는 문제로서 그들의 속임수가 더 잘 드러나는 분야다. 그리스도께서는 의에 대한 세세한 조목을 따지거나 어느 것이 우선하느냐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시려 드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공의, 친절 및 신의를 가지고 서로를 대할 때만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라는 간단한 교훈을 주시고

던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대치는 특히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사람들을 친절하게 자신에게 이끌려고 하시지만 사람들이 흔히 행하기 쉬우며 실제로 자주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합당하지 않은 것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까지 올려놓기 때문이다.”

- 20) 우리가 다루고자하는 마 17장과 23장은 각각 칼벱주석 16.II.163ff.과 341ff.에서 인용하였다. 그러나 마 17장에 대한 이해에서 칼벱은 반세겔의 세금을 국가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여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교훈하고 계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자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자 하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는 점을 증언하고 참 신앙에 대한 충분하고 올바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p. 309). 이제 칼뱅은 본격적으로 23절을 다루면서, “그리스도께서 공평과 자비 다음에 두는 십일조는 신성한 예배의 일부였으며, 어떤 면으로 볼 때, 그것은 두가지 예물이 포함되어있다는 점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것이다. 곧 여기서 십일조와 구제, 신의 및 공의가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의 허구적인 성결성과 정직하고 일관된 사랑의 감정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다.<sup>21)</sup> 최소한의 경비와 수고로 하나님을 달래 보겠다는 심산에서가 아니라면 왜 그들은 것처럼 십일조를 내는데 자발적이었겠는가? 그들은 진정한 뜻을 놓치고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하찮은 조항의 법칙은 결코 사랑의 여러 임무에 비길 바 못된다”(p. 309). 23절의 ‘이 것들도 행하고 저것들도...’에 대한 설명에서 칼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예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지켜야 하며 생략할 수 없지만 전체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핵심 문제를 지키는 것을 그만둘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중심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시한 문제를 가지고 법칙을 떠는 것을 당치 않은 것으로 여기고 계신다. 일종의 가외[sic. 加外] 문제였다”(p. 310). 24절에 대해서는, “그러나 바로 이것[sic.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빨아내는 행위]이 위선자들의 작태다. 그들은 심판, 자비, 그리고 신의는 무시하면서, 아니 전체 율법은 훼손하면서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딱딱하고 엄격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발에는 입을 맞추

21) 역자주: 이 문단은 평이성을 위해 필자가 번역을 수정하였다.

면서 거만하게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p. 310).

사도행전주석<sup>22)</sup>에서 칼뱅은 우선적으로 2장 43절ff에 대해서 신자들이 한 마음<sup>23)</sup>으로 각자의 소유를 팔아서 공유하고 분배하였다는 표현에 대해서 몇마디 중요한 말을 남긴다(pp. 120-21, 여기서의 일부표현은 필자가 수정하였다.).

“우리는 두가지 극단론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한편에서는, 시민생활의 질서를 핑계삼아서 자기들의 소유는 은닉하지도, 가난한 자를 속여 빼앗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함께 뒤섞으려고 하는, 상반되는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Luke)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는 확실히 하나의 다른 제도를 유념하고 있다. 그는 ‘재물의 분배에 있어서 선택적이었다’라고 말한다. 만일 누구라도 모든 물건은 공유물이었기 때문에 자기만의 것을 소유한 자는 없었다고 반대론을 펴는 이에게는 아주 간단한 대답을 줄 수 있다. 즉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음에 설명되고 있는 그 상황을 위하여, 즉 가난한 사람들이 각각 그 요구에 따라서 구제되어야 했다는 점에 한정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칼뱅은 4:32ff.를 설명한다. 그는 5천명이 넘는 교인들이 “성령”으로 하나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 또한

22)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사도행전 2:43ff.과 4:32ff.는 칼뱅주석 18.1.118ff.과 176ff.에서 인용하였다.

23) 우리말성경에서는 ‘다 함께 있어’로 번역되었으나, 칼뱅은 ‘동일하게’ 혹은 ‘하나로’(한 마음으로)로 해석한다(p. 120).

그는 이러한 내적 일치가 외적 적용에 이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sup>24)</sup> 다음의 칼뱅의 언급(p. 179)에 대해서, 독자들은 좀 인용문이 길어지더라도 인내(忍耐)를 갖고 읽어주길 바란다.

“부자들은 자기들의 토지에서 연간 수입되는 고정 수입으로 형제들의 가난을 구제한 것만이 아니요 그 토지 자체까지도 아끼지 않을 만큼 그들은 관대하였다는 것이다. 그 일은 그들을 전적으로 아주 발가벗기지 않고도 단지 그들의 고정수입을 얼마간 감소하는 것만으로 성취시킬 수 있었다. 그것은 누가의 말에서 우리가 역시 읽어내게 되는 일이다. 즉 그들이 그렇게 한 목적은 아무도 빈궁한 자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는 이렇게 지적한다. 즉 그들은 각자의 [곤궁함의] 필요에 따라서 분배가 되도록 조심성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헌납 처분했다는 말도 아니고 재물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sup>25)</sup> 평등하게 분배된 것이 아니라, [가난해서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아무

24) ‘확실히 우리가 그 순서를 지켜야만 한다. 즉 먼저 신실한 마음으로 피차 서로 사랑하는 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이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외적인 자선이라고 하더라도 만일 그것이 마음에서부터 우리나라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적절한 애정을 가졌다고 자만하지만 그러한 애정의 증거가 외적인 행위로 보여지지 않고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만다. 더구나 누가는 이야기가 나온 때에 다음의 사실을 지적한다. 즉 부자가 자기들의 재물을 자유롭게 분배함에 있어서 그들 자신의 실리를 생각하고 그 이상 더 나아가는 것이 없었을 때 각자의 개인적 이익의 견지에서 그들은 한 마음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pp. 177-78).

25) 이 부분은 필자의 부연설명이다.

도 극단적인 빈궁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바나바가 특히 이름을 들어 칭찬을 받은 것은 그가 자신이 소유한 유일한 토지를 팔았기 때문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다른 사람들을 능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도 모든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없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고 한 말이 무슨 뜻인지가 이로써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된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의 소유를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자기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사사롭게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필요한 자의 요구를 따라 공동으로 소유하려는 준비가 그들에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만일 이 말씀들을 읽고서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첩판보다도 더 단단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에 신도들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아낌없이 기증하였다. 오늘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노랭이 심정으로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요 잔인하게도 남의 것을 강탈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단순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내놓았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을 위해 취득하려고 천가지의 간교한 술책을 고안해낸다. 그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다. 우리는 하나님께 봉헌된 물건을 신성모독적인 대담성을 가지고 횡령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시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팔았다. 오늘날에는 사들이려는 강한 욕망이 최고로 지배한다. 그 시절에 사랑이 각 사람의 개인재산을,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동재산으로 만들었다. 오늘날에는 몰인정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땅 위에 사는 것까지 시기하고 물이나 공기나 하늘의 공유까지 아까워하는 정도이다.”

여기서 부자들의 재산헌납이 가난한 자들의 구제(교제, 혹은 섬김)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코자 한다. 이 공동체에 붙어닥치는 시험은 부자(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제용 재산을 일부 빼돌리는 사건이었다. 이 부분은 독자들이 각자 칼뱅의 주석을 참조하기 바란다.

고린도후서 8-9장주석<sup>26)</sup>에서 칼뱅은 바울이 고린도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케도니아교회들의 거룩한 선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고 본다. 고린도 기독교인들은 시기심과 질투에 능(能)했고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형제들을 돕는데 능했고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덕으로 돌리고 있다는 데도 능했다.<sup>27)</sup> 가난한 형제들을 돕는 일에 가난하고 궁핍한 마

26)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고린도후서 8-9장은 20.9.160ff.에서 인용하였다.

27) ‘비록 궁핍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이 칭찬할 만한 덕이라는 점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주는 것을 이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덕으로 돌리지도 않는다. 반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것의 일부가 상실되어 버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도울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덕으로 돌려야 하며, 그것을 진지하게 추구해야 할 특권으로 여겨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마케도니아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두 가지였다. 그 첫째는 그들이 고통을 침착하게,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견뎌냈다는 점이며, 둘째는 그들의 작은 재물 가운데서 그들이 형제들에게 베푼 도움은 풍성한 재물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점이다. 바울이 이 두가지를 다 주님의 일로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인간이란 모든 위로의 주인공이신 주님의 영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곧바로 넘어지고 말며, 확고한 신앙에 대한 뿌리깊은 결핍은 그것이 동일한 영의 은혜에 의해서 압도되기 전에는 항상 우리에게 탈라 붙어 있어서 사랑의 모든 임무로부터 우리를 붙잡아 놓기 때문이다’(p.

케도니아인들이 더 열심을 내었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비교적 풍요롭고 부했던 고린도인들과 비교할 때 말이다. 게다가 마케도니아인들은 간청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았으나 분에 넘치는 연보를 하였고 이제 고린도교인들에게는 바울이 간청을 하고 훈계를 하여야 했다. 기독교인들의 공동생활은 함께 거하는데 있는 것보다는, 공유(communion)와 공동분담(communal sharing)의 책임과 의무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비록 몸이 떨어져 있으나, 이 공동체의식은 형제를 돕고 구제하는 일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공동체의식의 원칙을 바울은 출애굽 공동체에게서 찾는다. 어른들은 아이들이나 노약자들보다도 더 많이 거둘 수 있었고 가질 수 있었고 비축할 수 있었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sup>28)</sup> 9장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바울은 연보를 쓰는 일에 구제나 도와준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데 주목해야 한다. 이 섬기는 일은 의무일 뿐이다.<sup>29)</sup> 바울에게 있어서 복(연보)이 탐욕(억지)과 대조되고

161).

28) ‘이제 여기서 이 이야기를 바울의 관점에 적용시켜보자. 주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가지는 양식에 대해서 호멜이나 다른 단위를 규정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에게 검약과 절제를 요구하셨으며 누구든 자신의 풍요 때문에 과도하게 되는 것을 금하셨다. 따라서 재물을 가진 자들은 그것이 상속된 것이든 자신의 근면이나 수고로 얻은 것이든, 쓰고 남은 것은 낭비나 사치용이 아니라 형제들의 궁핍을 덜어주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의 근원이 무엇이든 만나와 같다. 물론 여기에는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기만이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어진 재물은 만나의 명칭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 가운데서 보내시는 매추라기이다. 그리고 탐욕이나 신앙의 부족 때문에 과도하게 굶어모았던 만나가 당장에 썩어버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산적된 재물은 저주받은 것으로서 곧 없어질 것이요, 그것의 소유자도 그것과 함께 패망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pp. 170-71).

29) ‘돈을 제공하는 것에 비해 관용이 더 화려하게 묘사될 필요가 있다는 점

있다. 우리가 성도들 상호간에 축복을 하듯이, 물질(의 복)도 상호간에 나눠져야 한다. 당시의 파종습관에 맞추어 칼벵은 적게 심는 자와 많이 심는 자를 설명하고 있다.<sup>30)</sup> 씨뿌리는 자의 사명은 어떻게 넓게 많이 뿌려서 그 열매를 풍성히 얻을 것인가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요즈음은 씨를 뿌리러 나왔다는 사명의식을 망각하게 어떻게 하면 적게 씨를 뿌리고 남길까? 적게 뿌렸지만, 열매를 많이 거둘까라는 모순된 생각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자원하는 심령과 자발적인 헌신을 요구하시나 그것을 형제사랑함으로 형제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더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칼벵은 말한다.

히브리서 7장의 주석<sup>31)</sup>에서, 칼벵은 그리스도의 탁월한 사제직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론으로 비롯되는 유한한 사제직과 멜기세덱의 영원한 사제직으로 대조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비록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멜기세덱을 강조하고 있지만, 멜기세덱이 영원한 대사제직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거나<sup>32)</sup>

을 생각할 때, 이 단어(심기는 일)를 자신의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는 사람에게서 어울리지 않는 표현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바울은 신자들이 같은 몸 안에 있는 그들의 동료 형제들에게 신세지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서로간에 봉사할 임무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가 형제들을 도울 경우에 우리는 그들의 몫이 되는 우리의 봉사를 수행할 뿐이다. 반대로 성도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도 그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단순한 불친절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그들에게서 그들의 당연한 몫을 사취하는 것이다'(p. 177).

30) '그는 들성들성 파종하는 자는 적은 수확을 거둘 것이지만, 너그럽게 한 움큼씩 쥐고 뿌리는 자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것으로 말하고 있다'(p. 179).

31) 우리가 다루는 히브리서 7장은 칼벵주석 20.II.152ff.에서 사용하였다.

32) '사도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과 그 사제 직분에 관해서 논술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전혀 인간적인 억측이 끼어들 수 없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어떤 지식을 찾는다는 것도 정당하지 못하다. 동시에 이 말씀에 따라 어떤 열빠진 사람들이 천진하게 생각하듯이, 아브라함을 만난 바로 그 인물이 아직도 살아 있다고 결론지어서도 안된다. 이 진리

그에게 영원히 십일조를 바쳐야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한 것이다. 심지어 유대인과 교회가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신앙의 아버지라 부르고 아론의 사제직을 높이 취급하나,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에 비하면 하등(下等)한 것이며 유한(有限)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칼벵은 저자가 아론의 사제직의 불완전성과 유한성에 대한 명백한 진술을 발견한다.

#### 4. 결론

간단하게나마 우리는 칼벵의 구약 십일조에 대한 이해와 신약의 구제헌금관을 살펴보았다. 필자가 보기에 칼벵의 논의에 있어서 일부 불일치점이나 오류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나, 칼벵의 입을 통하여 성경을 살펴보는 것도 우리의 <한국교회의 십일조논쟁>에 상당한 유익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의 주석을 통해서 볼 때, (신약의 헌금관과 아울러서) 구약의 십일조관을 성도간의 구제와 교제의 용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이며 이러한 정신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할 교훈이라는 점을 깨닫게 한다. 그러므로 스위스의 개혁자 장 칼벵을 시조(始祖)로 받들고 있는 한국 장로교회의 십일조관은 불행하게도 칼벵의 견해와 "전혀(absolutely)" 부합하지 않는다.❶

는 그가 나타내는 인물, 즉 하나님의 아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pp. 158-9).